기상청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5. 31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5. 31.(화) 09:00
담당 부서	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	책임자	과 장 조익현 (02-2181-0861)
		담당자	기상연구관 정성화 (02-2181-0862)

2021년 낙뢰 12만 4447회 발생, 전년 대비 51% 증가

- 2021년 우리나라 벼락에 관한 기록, 「2021 낙뢰연보」 발간 -

□ 2021년 전년 대비 약 51% 증가, 지난 3년간 평균 38%씩 지속적 증가
□ 8월에 연간 낙뢰의 37%(4만 5596회) 집중, 일 1,471회 번~쩍!
□ 7월은 대구, 경남, 경북, 8월은 부산, 경남, 광주로 남부권에 집중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2021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**「2021 낙뢰연보」를 발간**하였다.

○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**△월별 광역시·도별 △시·군·구별 낙뢰 발생 횟수 △단위 면적(㎢)당 횟수 △낙뢰 발생 공간 분포 △주요 5대 낙뢰 사례**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□ 연보에 따르면 **20021년 우리나라에서 약 12만 4천회**의 낙뢰가 관측되었다. 이는 **최근 10년 평균 약 11만 6천회 보다는 약 8% 많았으며, 2020년의 약 8만 3천회에 비해서는 약 51% 정도 많이 관측**되었다.

○ 광역시·도별 단위 면적당 연간 낙뢰 횟수는 **경상남도, 대구광역시, 전라북도 순**으로 많이 발생하였다.

○ 2021년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**8월로 45,596회(약 37%)**가 관측되었으며, **연간 낙뢰의 약 72%가 여름(6월~8월)에 집중**되었다.

○ 여름 낙뢰(6월~8월)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되었다.

○ 6월에는 10년 평균보다 적은 낙뢰가 관측되었으며, 5월과 8월에는 10년 평균을 웃도는 낙뢰가 관측되었다.

○ 특히 5월 최근 10년 월평균(11,397회)에 비해 2배 정도 많이(22,606회) 발생하였는데, 저기압에 동반된 집중호우 영향을 받은 5월 28일에는 이례적으로 5월 전체 낙뢰의 약 33%(7,388회)가 집중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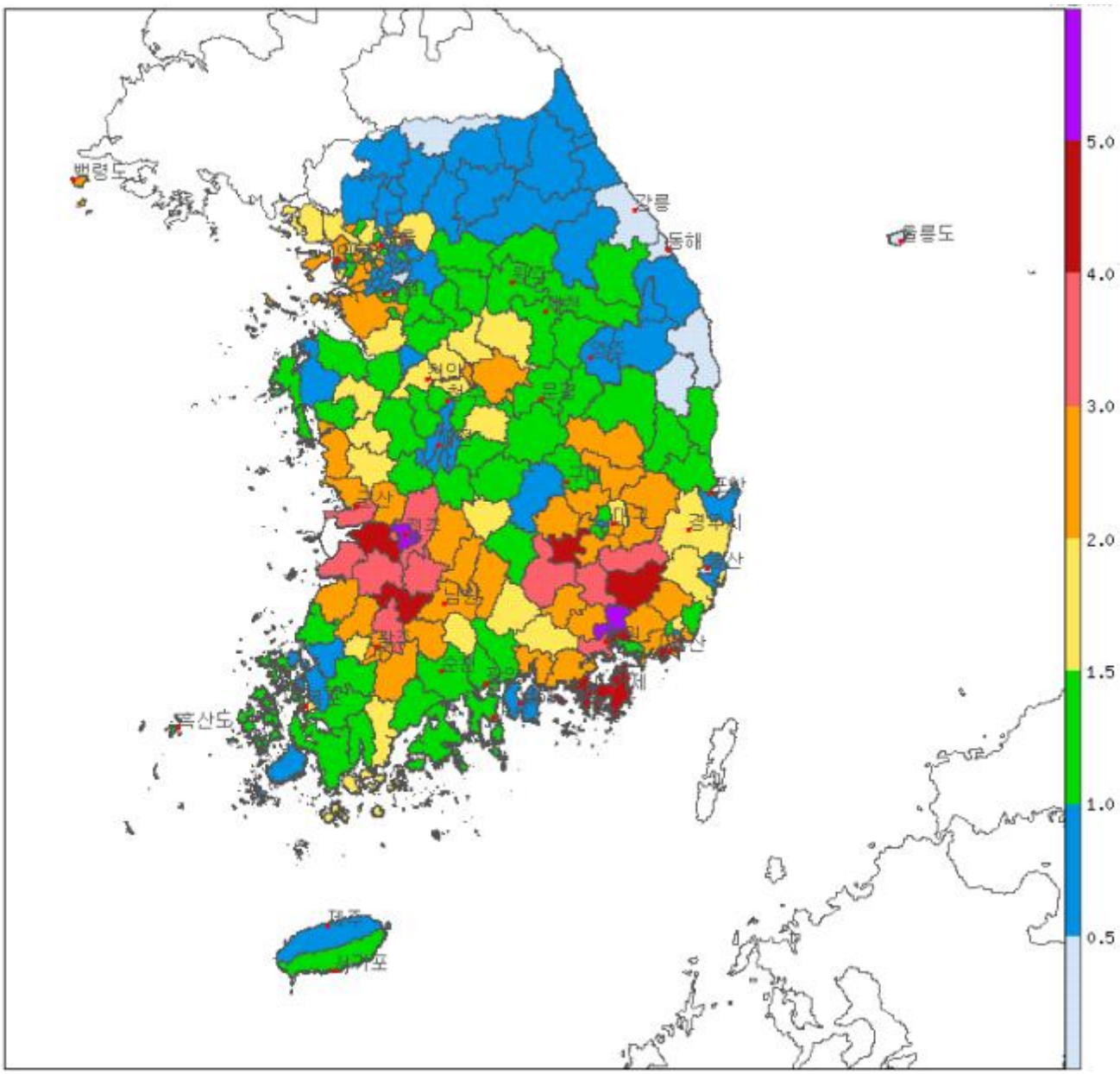
□「2021 낙뢰연보」는 기상청 행정누리집(https://www.kma.go.kr/kma) ▶자료실 ▶기상간행물 ▶낙뢰연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, 전자파일(PDF)형태로 제공된다.

□ 기상청장은 “여름철 야외활동 증가로 국민들이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,「2021 낙뢰연보」가 낙뢰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마련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” 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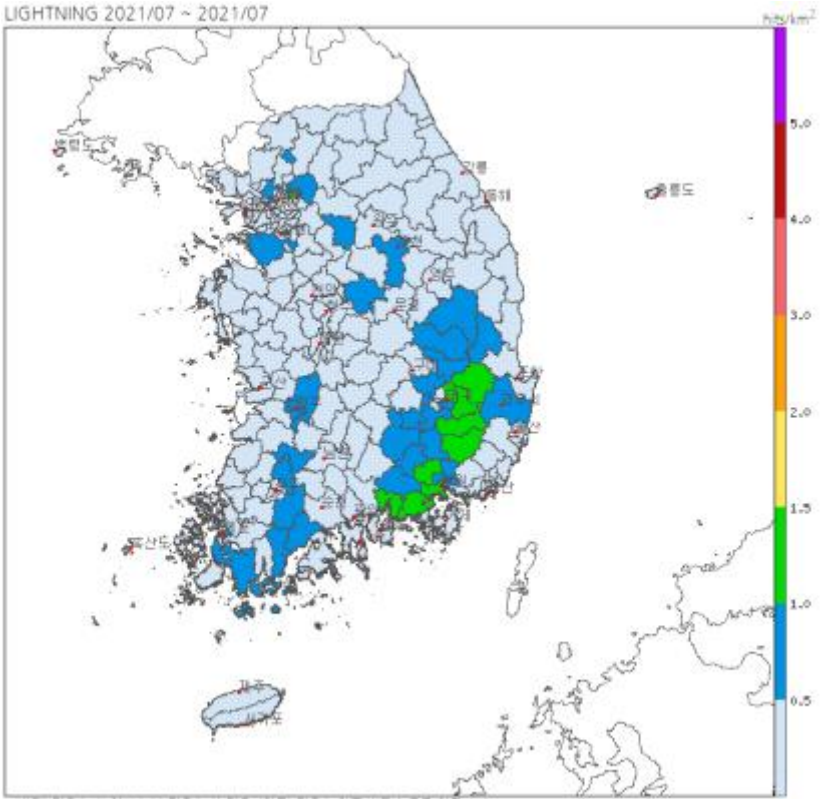
□ 붙임 「2021 낙뢰연보」 발간 참고자료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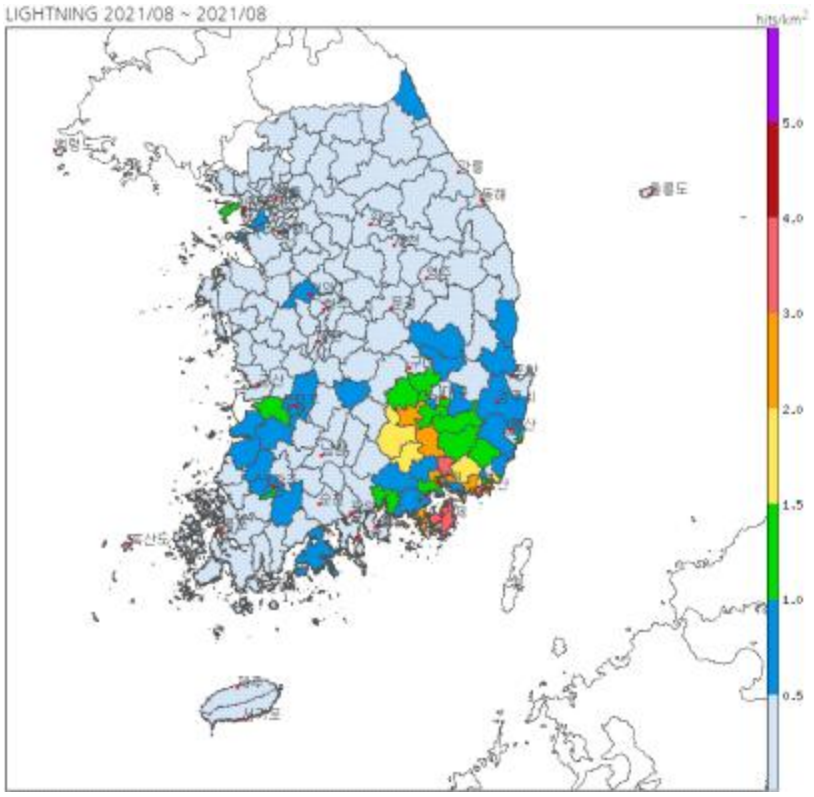
붙임 「2021 낙뢰 연보」 발간 참고자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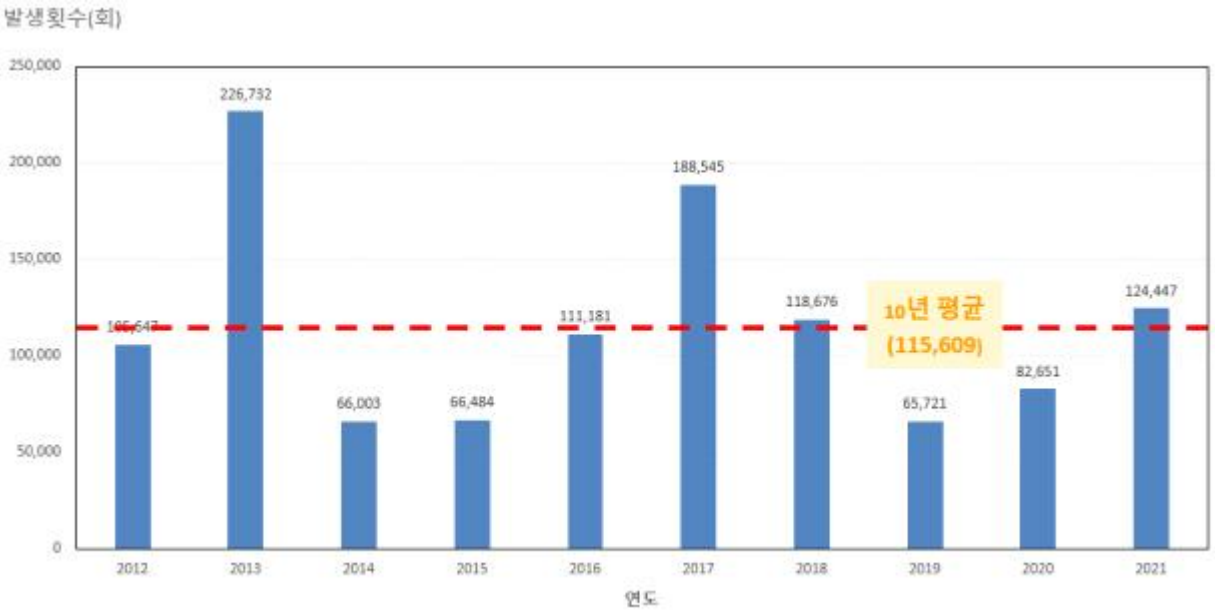
< 2021년 행정구역별 단위면적당 낙뢰 횟수 분포 (hits/km^2·year) >



< 2021년 7월 낙뢰 횟수 분포 (hits/km^2·month) >



< 2021년 8월 낙뢰 횟수 분포 (hits/km^2·month) >



< 최근 10년(2012~2021) 낙뢰 횟수 및 10년 평균 (hits/year) >



< 2021년 월별 및 10년 월평균 낙뢰 횟수 (hits/month) >